

광주 서구를 지지율 정체 속타는 문재인

‘성완중 파문’에도 조영택 후보 기대 못 미쳐 고심

오늘부터 공식 선거전...18일 집중 유세 ‘판세 뒤집기’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1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으로 선거 초반에 비해 전체적인 보궐선거 판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어느 한 곳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가 좁혀진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문 대표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심장이자 뿌리인 광주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 후폭풍과 여진은 곧바로 문재인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 민심의 지지 없이는 문 대표 체제

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추후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표는 지난 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판세를 뒤집기 위한 ‘속박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 민심은 문 대표의 구애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광주 민심의 기저에 깊게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조영택 후보를 돕기 위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문 대표가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광주 민심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적 계기가 없다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순천·곡성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당선과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친노 주자인 문재인 후보에 맞선 호남 민심의 결집 흐름이 광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천정배 후보 측에서는 이번 선거 구도를 ‘문재인 대 광주민심’, ‘혈혈단신 천정배 대 기득권의 새정치연합’ 대결 국면으로 유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의 자존심을 거론하며 광주 서구 을의 선택이 지역 정치권과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물론 정권교체의 새로운 출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오는 18일 집중 유세를 통해, 광주 서구 을의 판세를 뒤집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1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구를 판세가 박빙 열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권 창출의 중차대한 시기에 광주 민심이 탁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이어 “18일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고 지역 유세에 나서는 것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새정치연합 모든 의원들이 광주를 방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총력전에 나서면 따라 광주 서구 을의 선거 결과는 낮은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정배 바랍이 붙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조직력도 상당한데다 정승 새누리당 후보도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서구 을의 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물론 문재인 대표 체제 유지와 차기 대선 구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천정배 지지’ 지방의원 3명 제명

해당 의원들 반발 회견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구를 지역에서 당 후보인 조영택 후보가 아닌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지한 현역 광주시의원과 구의원 등 3명을 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5일 오전 제16차 회의를 열고 김영남 광주시의원, 김옥수·이동춘 광주 서구의원 등 3명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새정치연합 소속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공개 지지한 행위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합량미달인 후보를 내놓고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

는 지방의원을 제명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 서구를 주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제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천 후보와 함께 호남개혁정치 복원과 야당다운 야당의 재건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자신을 키워 준 조직과 사람들을 배신하고 어찌까지 자신들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치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방의원 제명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의원들은 당의 적극적인 후보 지원 요청에 따르지 않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 서구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완중 파문 ‘특검 요구’ 뒤바뀐 與野

여는 ‘적극’ 야는 ‘미적’

‘성완중 파문’이 확산하면서 특검 도입 문제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적인 모습은 야당이 특검 발동을 요구하며 공세를 퍼붓는 반면, 여당이 검찰 수사에 맡기라며 차단막을 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검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검찰 수사 후(後) 특검’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2년 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새누리당에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면서 “국민이 요구한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특검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특검을 말하는 게 언뜻 선명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는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렇게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 전략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생략하고 특검으로 정국을 전환해 정면 돌파의



“이것이 비타500”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비타500 박스를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한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타500박스를 내보이며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청래,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연합뉴스

의지를 보이고, 동시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 당직자는 “야당이 요구하면 특검을 바로할 것”이라면서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특별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는 시간을 끌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으로서의 검찰 수사 후 특검을 통해 공세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게 일단 유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지만 중립성 있는 특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특검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협상 때 봤듯이 권력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사안인 만큼 고도의 중립성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의회,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인사청문회

장 내정자 남편, 윤장현 시장과 땅 공동 소유 논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는 장혜숙(69) 내정자의 남편이 윤장현 광주시장과 공동 소유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나돌았던 ‘사전 내정설’이 쟁점이 됐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임원추천위원회 채점표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상필 위원은 이날 자신이 확보한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장 내정자의 남편 황도(70)씨가 구례군 간전면 윤천리 일대 약 2만4000여㎡를 윤 시장 등 4명의 명의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땅은 윤 시장과 동문 선배 의사인 A씨가 1988년 소유권을 이전한 뒤 1995년

윤 시장 등 4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문 위원은 “장 내정자의 남편이 윤 시장과 20여년간 토지를 공동 소유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두터운 사이이다”면서 “이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장 후보자의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위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찬조 발인을 했다”고 말했다. “윤 시장 캠프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 내정자는 위원들이 제기한 여성재단 조직개편 의향과 여성발전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비전 등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했다. 인사특위는 이날 오후 산회를 선포하고 16일 오후 2시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美 방문...한·미관계 등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성을 방문, 한미관계와 일본의 역사왜곡문제, 북한 문제 등 동북아시아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조 시장을 비롯해 이견식 김제시장(부회장), 박성민 울산중구청장(대변인), 남유진 구미시장(감사), 송광은 광주 북구청장(감사) 등 임원진

과 지역회장인 조윤길 운진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광대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단은 13일 국무성에서 마크 로젤(Mark Rozell) 조지 메이슨 대학 공공정책학 교수와 미국 정부부조, 연방·주·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차원의 정부 부처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토론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